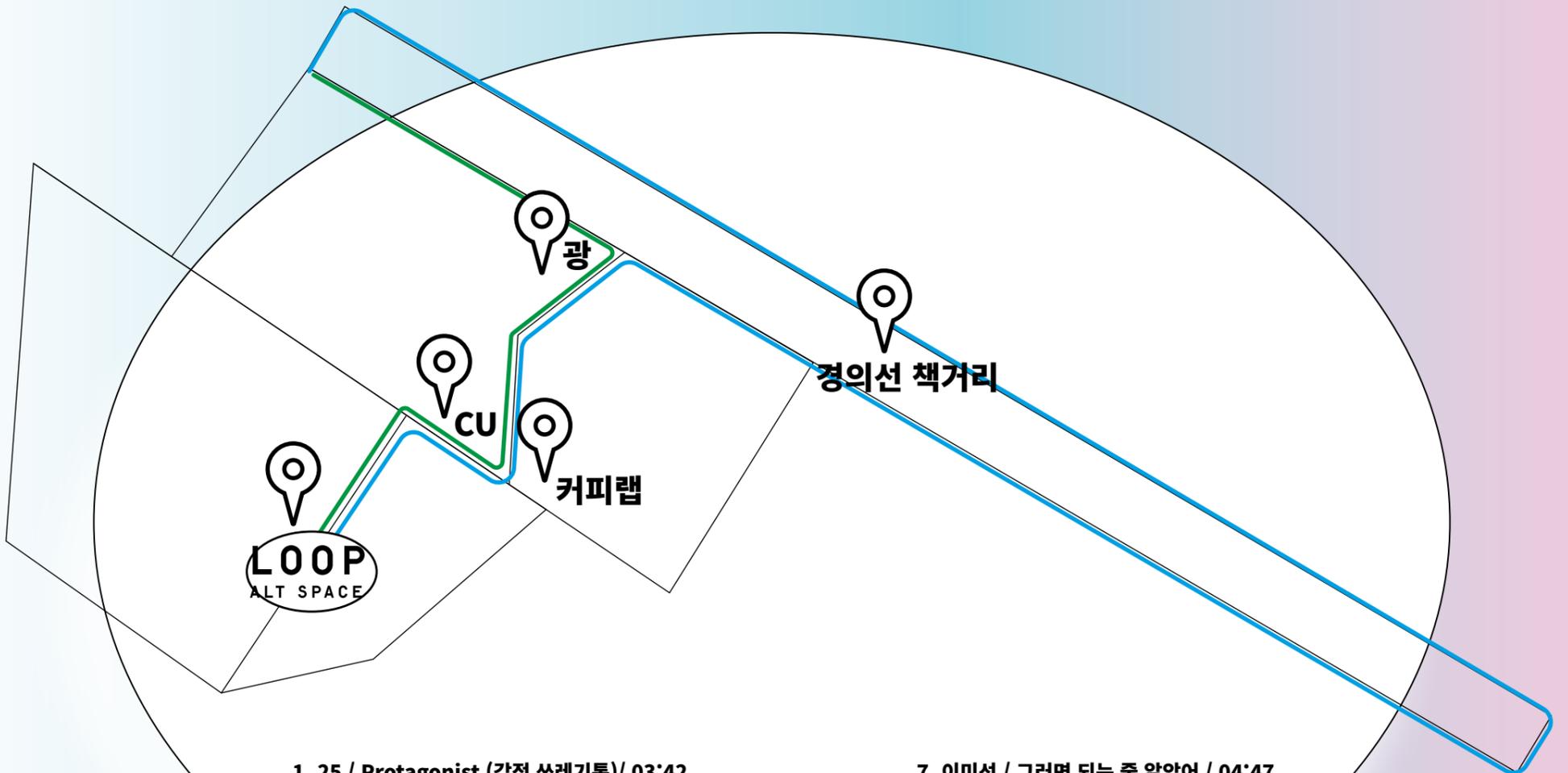


간결한 생각들

도래해 마땅한 사회는 어떤 형상을 갖는지를 고민하는 예술가와 시민은 루프로 자신이 그간 만든 디지털 음원을 보내왔다. 권병준이 제작한 헤드폰으로 40여분의 다양한 음원을 들으며 흥대를 걷고, 지금의 세계와 도래해야 할 세계에 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1. 25 / Protagonist (감정 쓰레기통) / 03:42

25는 아트 디렉터, 엔지니어, 작편곡가, 실험 음악가이다. <Protagonist(감정쓰레기통)>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외로움을 못 이겨 서로를 찾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커다란 사회의 모습임을 Texture Ambient로 표현한 곡이다. “우리는 커다란 사회 속 녹슨 톱니바퀴들.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녹을 옮기고, 또 옮기면서, 삭아 부서져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 김준규 / Glass in Water / 04:58

일렉트로닉 음악 DJ/프로듀서 및 시각예술가로 활동 중이다. 김준규의 작업은 ‘감각이 과연 실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Glass in Water>는 물이 담긴 유리 수조에 유리잔과 얼음 등을 이용해 즉흥적으로 소리를 내고 마이크로 받은 소리를 DAW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주하는 라이브 퍼포먼스이다. 손끝으로 발생시킨 감각에 대한 지각적 탐구이며, 과정에서 생긴 예기치 못한 결과와 발견으로 작업을 이어간다.

3. 단지는 / 공존 / 04:34

단지는은 싱어송라이터이다. <공존>은 왼쪽과 오른쪽 각각 다른 음상에서 같은 코드이지만 다른 플랫폼의 위치인 기타 이펙터 사운드가 흘러나온다. 다르지만 공통된 소리들은 엇갈리고 합쳐지며, 제목과 같거나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다.

4. 성보경 / Babel / 03:02

성보경은 음악으로 순간의 생각을 기록한다. 사라진 것들과 함께 살아있는 것을 공유한다. <Babel>은 현대 인류가 맞이한 위기를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에 비유한다. 현대인의 욕심이 자초한 위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3분기량 바벨은 말에는 박자와 음이 존재하지만, 듣는 이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 언어가 달라 서로 알아듣지 못했던 성경 속 바벨탑 일화처럼 욕심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인에 대한 경고다.

5. 윤다는 / 모험 / 02:18

윤다는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기반으로 곡을 풀어나간다. <모험>은 미지의 장소를 탐색하듯 모험을 하면서 발생하는 감정의 기승전결을 나타낸 곡이다. 기쁨, 무서움, 두려움, 안도감 등 모험을 통해 생기는 인간의 감정을 들을 수 있다.

6. 이림 / 먼지, 걸음, 독백 / 02:43

이림은 지구의 모든 것을 청각으로 관찰하는 것에 집중한다. <먼지, 걸음, 독백>은 의미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찬 2분 43초이다. “우리의 땅과 걸음과 공기와 같습니다. 부다와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7. 이미선 /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 04:47

이미선은 곡을 쓰고, 연주하고, 노래한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는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과 이별, 마음이 재가 될 때까지 사랑한 뒤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랑 노래이다. “너를 만날 때마다 순한 뽀만큼 내가 사라져도 좋았다. 아픔도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재가 될 때까지 사랑했던 나는 갈 곳을 잃었다. 나의 전부를 주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 혼자라는 사실이 가끔 버거울 때가 있다.”

8. 어유진 / 우도의 해(2021) / 04:41

어유진은 삶에서 마주하는 오묘한 '상호 관계성'의 개념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우도의 해>는 우도에서 만난 다섯 명의 아이들과의 인연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동요이다. 현재 우도는 자연경관을 내세운 관광지로서 최근 몇 년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섯 아이들의 감성과 섬이 지닌 내면적 깊이와 표면, 아이들의 말투와 행동, 눈빛에 담긴 여운과 여음을 함축한 곡으로 작곡가 김건년과 함께 창작했다.

9. 임희주 / An Axe with a Tree / 04:24

임희주는 소리와 움직임이 있는 기계를 만드는 연구와 실천을 통해 소리의 몸을 만드는 시도를 한다. 작가는 시끄러운 소리로 폭력의 재생산을 막는 가능성과 소모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이즈 전유 방식 주장에 공감한다. <An Axe With A Tree>는 네 개의 각기 다른 시공간의 음원이 나열된 미니믹스로, 소리의 재료는 필드 레코딩을 통해 얻고, 그 소리들의 음색 timbre를 과장, 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청각 매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공간적 상상력을 부추겨 내면의 과잉된 에너지를 해소시키려는 시도이다.

10. 에이녹스Einox / 모듈레이션 1 / 04:17

에이녹스는 DJ/전자음악가이다. <모듈레이션Modulation 1>은 난지한강공원, 마포구 일대 대로의 소리를 수집, 샘플링하여 레프트필드 Leftfield 류의 음악으로 편집한 음원이다. 샘플 분할, 스트레칭, 피칭 등을 활용하는 그레놀러 신디사이징Granular synthesizing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2020년 독립적으로 발매된 Einox의 앰비언트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있다.

11. 몬티 카요티Monti Kayoti / 침잠을 위한 시퀀스 / 04:37

몬티 카요티는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듀서이다. 오디오 작업을 위주로 한 작업과 코딩을 활용한 비주얼, 그래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침잠을 위한 시퀀스A Sequence for Sinking>는 단단한 논리와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를 대하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작되었다. 소음과 같이 흩날리는 소리에서 점점 단단한 음과 리듬으로 변화하는 시퀀스가 흐르는 동안 점점 마음속 깊이 침잠하기를 기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디오
시각
디자인
재단

